

기획특집

1. 한·미FTA 피해 대책방안
2.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3. 한우암소비육프로그램 안내

파워인터뷰

“한우자금을 설정, 비육과 번식농가 상생해야”

정호영 전국한우협회장

Focus

1. 가축질병방역 긴급점검
2. 암소도태장려금
3. 한·미 FTA 발효 농가대응

한우는
농심이다!

예로부터 한우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를 이겨내기 위한 버팀목으로 한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MARCH 2012

- 02~03 기획특집 1
한·미 FTA 피해 대책방안
- 04 Focus 1
가축질병방역 긴급점검
- 05 파워인터뷰
정호영 전국한우협회장
- 06~07 기획특집 2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08~09 Information 1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0 Focus 2
암소도태장려금
- 11 기획특집 3
한우암소비육프로그램 안내
- 12~13 Focus 3
한·미 FTA 발효 농가대응
- 14 Information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안내
- 15 애독자코너

기획특집1_한·미 FTA 피해 대책방안

한·미 FTA 발효! 축산분야 피해 대책방안

쇠고기가 피해 예상, 15년간 단계적 관세 폐지

| 농림수산식품부 |

지난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32.8% 수준인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미국은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60.2% 수준인 1,21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율이 15일부터 2.7% 인하 적용된 37.3%의 관세가 적용, 15년에 걸쳐 폐지되며 관세 철폐기간 동안 셰이프가드가 적용된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농어업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연 평균 8,44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며 축산분야가 72,993억원(57.7%)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어 축산에 해당하는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쇠고기 협상 결과 및 피해 영향분석

쇠고기는 15년뒤인 2026년에 관세가 완전 폐지되며 셰이프가드(ASG)를 적용. ASG 발동물량은 1년차에 270천톤을 시작으로 매년 6천톤씩 증량되어 15년차에는 354천톤이 적용된다. 발동세율 또한 1~5년차에는 40%, 6~10년차는 30%, 11~15년차는 24%로 낮춰지게 된다.

이에 쇠고기 피해액은 5년차에 1,040억원, 10년차에 2,463억원, 15년차에 4,438억원으로 증가되어 15년 누적 시 30,036억원이 되며 연평균 2,002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어 농수축산물 중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개방 초기단계에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기로 갈수록 피해가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믿기힘든
한·미 FTA 발효라는
답답한 현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미FTA발효라는 또 하나의 시련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한우는 독심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 내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따뜻한 배려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안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축산분야 피해에 대비하여 정부는 2007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 1월 '여·야 13개 합의를 사항'을 반영해 총 54조원 규모의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1 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했다. 또한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공식을 신설해 축산농가에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출공식(일반 기준) : 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2 비과세 공제두수 확대

축산농가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확대(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변경)하고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 163천호의 한(육)우 농가 중 30마리 미만에 해당하는 138천호(84.7%)의 기존 수혜 농가가 50마리 미만으로 확대 시 12천호(7.4%)가 추가되어 전체 농가대비 150천호(92%)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3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기존 시설현대화 사업(보조+융자)의 예산을 작년대비 1,659억원 증액하고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사업(이차보전)을 신규 도입해 저리 이자로 지원한다.

구분	2011년		2012년(계획)	
	예산(억원)	지원규모(개소)	예산(억원)	지원규모(개소)
축사시설현대화	1,633	720	2,760	1,355(증 635, 88.2%)
축사시설(이차보전)	-	-	42(실지원 : 2,125)	1,063

#4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에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미만),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가 추가되고, 로더의 지원범위가 2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확대됐다.

면세유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 1,200, 화물자동차 379, 굴삭기 181,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 1,000

#5 발농업 직불제 신규도입

발농업 직불제가 신규 도입되어 12월까지 19개 발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당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해당 품목: 사료 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울무),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참깨, 땅콩, 고추, 미늘

후속조치 완료 대책(축산정책 위주)

항목	대책 내용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발동요건 가격기준 : 85% → 90%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 공제두수 범위 확대 소 : 30마리→50마리 비과세 소득금액 증액 : (현행) 1,800만원→(증액)2,000만원
축발기금 확충	•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대화(보조+융자) 지원규모 확대 대출 금리인하(3%→1%, 융자만 지원 시)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확대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11개→21개) -이중 16개 품목은 무관세(현행 4개)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1차연장(2012.6월말→2015.12월말)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1차연장 (2011.12월말→2014.12월말)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공급대상 추가 :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 및 농업용 1톤트럭

구제역 하루빨리 종식해야, 브루셀라는 감소세

● 정부와 농가 합심해서 구제역 종식시켜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다. 현재 방역상황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방역 활동이 이전에 비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강원도 원주의 김명재씨는 지자체의 책임있는 방역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명재씨는 “질병이 전 나라를 뒤 흔들 때는 아침저녁으로 소독차가 돌아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했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예전 같은 방역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가들이 분명 반성해야 하지만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농가들이 방역의식을 갖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 이사회에서는 구제역 백신의 개선사항이 건의됐다. 현재 백신 공급이 몇십 두 이상의 백신만 판매해 소량구매가 어려워 불필요한 백신비용이 지출되므로 소량 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경북 안동의 조득래씨는 “구제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려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의 백신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의 임용현씨는 “외진 곳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백신을 구매하려면 판매처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 농가가 손쉽게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백신 공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육현장에서는 백신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접종시기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앞으로는 전업농가 이상의 경우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해야 하니 농가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브루셀라 검사 의무화로 발병감소, 보상금 100%로 인상해야

한편 지난해 소 브루셀라병의 발생은 총 490건에 4천70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검사본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 브루셀라의 발생은 2010년보다 발생건수는 166건이 줄었고, 발병두수는 752두가 줄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은 브루셀라 검사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의 경우 4천498건에 총 발병두수가 25만454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올해 1월 12일까지 집계된 브루셀라 발생 건수는 9건에 104두다.

발생건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검사가 의무화 된 만큼 현장에서는 브루셀라 보상금을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브루셀라 보상금은 기존 100%에서 '06년도 80%로 감축했으며, '07년도에는 60%까지 하향조정했다. 이후 농림부는 ‘발생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져 유지되면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시 8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현재 한우의 브루셀라 발생률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한우협회에서도 발생현황을 검토하여 브루셀라 보상비의 인상을 건의 할 예정이다.

연도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연도	발생두수	발생건수
2004	5,383	711
2005	17,690	2,590
2006	25,454	4,498
2007	11,547	2,333
2008	8,407	1,826
2009	6,571	1,092
2010	4,822	656
2011	4,070	490



“한우자급률 설정, 비육과 번식농가 상생해야”

5대 전국한우협회장으로 당선된 정호영 회장

한우협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1일 개최되어 제5대 회장으로 정호영회장이 당선됐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정호영 회장에게 한우협회 운영방안에서부터, 한·미FTA 발효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복안까지 들어봤다.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자급률 설정부터

한우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자급률은 매우 중요한 키 포인트다. 수입육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우의 자급률은 곧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경우 수입량과 한우고기의 생산량을 단순히 비교한 자급률이 기준이 됐다. 국민 1인당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우고기의 자급률을 설정해 이를 토대로 한 안정적인 성장이야 말로 한우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한우고기 소비활성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자급률을 올려 간다면 지금 같은 가격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돼 농가들이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기반을 마련해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나서야 할 때다. 안정적 자급률을 기반으로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우산업은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우협회 12년 급성장 내실을 다질 때

한우협회의 역사는 12년에 불과하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생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한우자조금,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쇠고기생산이력제 등의 현안에 앞장서면서 강한 결집력을 보여줬고, 지역 시군지부의 회원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지금의 협회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급성장으로 인해 중앙회의 조직은 강화됐지만 일선 시군지부의 상황은 12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한우협회의 힘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협회의 시군지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육과 번식, 상생의 길 찾을 것

어떻게 보면 비육과 번식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 비육농가의 입장에서는 송아지 가격이 낮은 것이 유리하고, 번식농가는 반대로 가격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 한우협회는 이 둘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된 모습은 옳지 못하다. 전국의 17만 한우농가 가운데 10두 미만 사육농가가 75%다. 이들의 협회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이들 역시 소중한 한우농가들이다. 협회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면 이들이 스스로 협회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협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위기의 상황, 협회가 할 일 많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농가들이 협회에 기대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100%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한다면 협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협회장으로 당선된 만큼 후회없이 일해보려 한다.



암소감축 등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한육우 사육동향 및 전망

2011년 12월 사육두수 전년보다 1.0% 증가
가임암소는 124만9천두로 전년동기보다 4만6천두(3.8%)증가했지만, 암소도축 증가로 2011년 12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1.0%(2만8천두) 증가 295만두에 그쳤다. 이 가운데 한우 사육두수는 282만1천두였다. 사육농가는 16만3천호로 전년 동기보다 9천호(5.2%) 감소했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18.1두로 전년 동기보다 1.1두 증가했다.

3~5월 송아지 생산 잠재력 2011년보다 높아
한우 정액혈통증명 발급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송아지 생산잠재력은 지난해보다 2.7%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정액공급이 거의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송아지 생산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전업농가 송아지 입식에 신중
송아지 입식의향 조사 결과, 송아지 입식을 계획보다 늘리겠다는 농가의 비율이 전분기(1.6%)보다 높은(3.1%) 반면, 줄이겠다고 응답한 농가도 높게(3.8%) 조사됐다.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송아지 입식 과열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송아지 입식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사육두수 304만두 전망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하지만 도축두수 증가폭이 커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 동기보다 0.9% 증가한 291만두,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0.3% 감소한 304만두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2011년 등급판정두수 전년보다 19% 증가
구제역이 진정된 4월 이후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2011년 한우등급판정두수는 71만6천두로 2010년보다 19% 증가했다. 대규모 할인행사 등 설 수요 증가로 2012년 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한 9만8천두였다.

올해 1월 1등급이상 출현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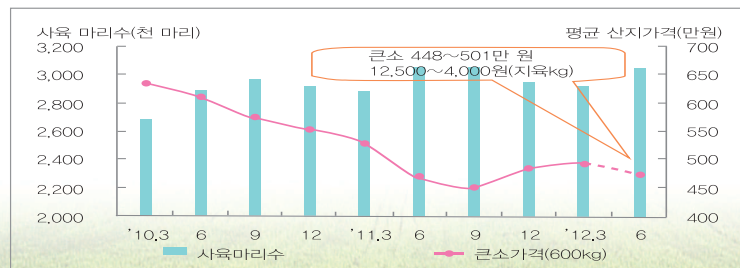
암소 도축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1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55.7%로 전년 평균 62.7%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3~5월 도축두수 13.8% 증가 전망

출하대기물량이 여전히 많아 3~5월 도축두수는 전년(17만1천두) 보다13.8% 증가한 19만5천두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량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011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8.1% 증가한 28만

한육우 사육마리수 및 가격전망



9천톤이었다.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 50%, 미국 37%, 뉴질랜드 12%, 기타 1%였다. 올 1월 수입량은 2만1천78톤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2011년 12월 기준 수입육재고는 4만3천394톤이다. 전체 수입량의 15%정도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이다. 때문에 3~5월의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9만톤)보다 31% 감소한 6만2천톤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할인행사로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

2011년 소비자의 가정 내 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1.48kg으로 전년도 1.39kg보다 6.6% 증가했다. FMD로 상반기 주춤했던 쇠고기 소비가 중반기 이후 연이은

대규모 할인행사의 효과로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우가격 동향 및 전망

산지한우가격 회복세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로 입식 수요가 감소, 작년 12월 암송아지 거래가격은 평균 90만원을 기록했다. 수송아지 또한 117만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연초 한우산업대책 발표 이후 입식 의향이 높아지면서 산지가격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암소거래가격은 389만원, 수송아지는 141만원, 암송아지는 114만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이다.

현장전망



▲임관번(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적정 사육두수 모델 및 대책 절실

지난 3월 8일 양평가축시장의 경우 한우 수송아지의 최고가격이 275만원이었다. 불과 세달 전만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격이다. 공판장의 경락가격도 설 이후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농가 치고 가격 상승이 반갑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한우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한우가격의 상승세는 사육두수를 늘리게 될 것이고 결국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

암소도태장려금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사육두수를 조절하려는 입장에서 산지 소 값의 상승이 결코 반갑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이유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우감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정 사육두수 유지하는 한우업계의 지상과제다. 지금의 송아지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공수정을 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송아지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4월부터 공급량이 증가하면 송아지 가격은 다소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한우가격 상승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에서는 이번일을 계기로 적정 사육두수 모델을 내놓고 이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미 전국의 한우농가는 한우가격하락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300억원을 대책으로 투입하고 있기에 사육두수 조절 및 유지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가격 연동제 찬성(67.6%), 반대의견(32.3%)보다 2배 높아

한우 가격 대비 맛 만족(90.8%), 하지만 비싸다(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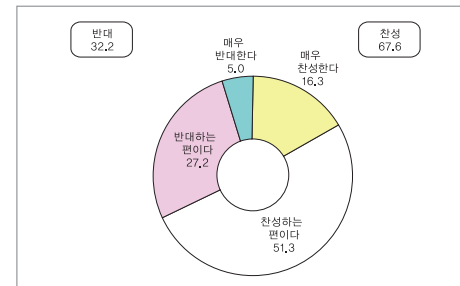
한우자조금은 지난 달 24일 '한우고기 전문음식점 현황조사'(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과제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5,095개 한우 음식점을 대상으로 작년 9월 7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설문을 실시,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우가격연동제 67.6% 찬성

현황조사 결과 한우 전문 음식점들 가운데 한우 가격 연동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67.6%로 반대의견(32.2%)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판매점의 경우 가격연동제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우업체 입장에서는 3곳 중 2곳이 찬성했다는 결과를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우 가격 연동제를 비롯해 복잡한 한우 유통 구조 개선 등 한우고기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1. 한우 가격 연동제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 n=4,240)



※ 모름/무응답 제외

한우고기 구입은 어떻게 하는가?

또한 한우고기 구입 시 거세우(50.8%), 암소(43.8%), 비거세우(5.4%)순이며, 등급(품질)과 가격 고려 비율은 각각 74.9%, 25.1%이다. 주로 취급하는 등급은 1+등급이 48.6%로 가장 높았고, 1++등급(25.6%), 1등급(21.9%) 순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의 주 구입처로는 유통업체가 42.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축협(브랜드 한우) 20.5%, 18.9%가 육가공공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한우 구입방식으로는 부분육 구매가 68.5%, 지육(이분도체)구매 27.6%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우고기 구입 가격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83.7%로 '싸다'는 응답(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우판매는 구이위주 판매 73.4%

한우판매전문점에서 한우고기 조리 방법별 비중은 구이가 73.4%, 육회(생고기) 9.6%, 양념육 9.2%, 탕 7.8%로 구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우고기의 등심, 갈비, 불고기의 1인분 평균무게 및 가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한우고기 90.8%가 만족

한우 고기의 가격 대비 맛에 대한 만족도는 90.8%의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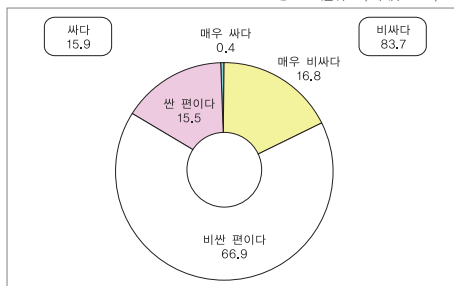
표2. 한우 고기의 등심, 갈비, 불고기의 1인분 무게 및 현재, 1년전 1인분의 판매 가격

구 분	1인분 평균 무게(g)	1인분 평균 판매 가격(원)	판매 가격 격차 (현재 - 1년전 ; 원)
등 심 (n=3,827)	209.6	현재 : 26,295	+108 (0.41% 상승)
		1년 전 : 26,187	
갈 비 (n=2,571)	195.5	현재 : 23,905	+104 (0.44% 상승)
		1년 전 : 23,801	
불고기 (n=2,125)	219.5	현재 : 13,599	+114 (0.85% 상승)
		1년 전 : 13,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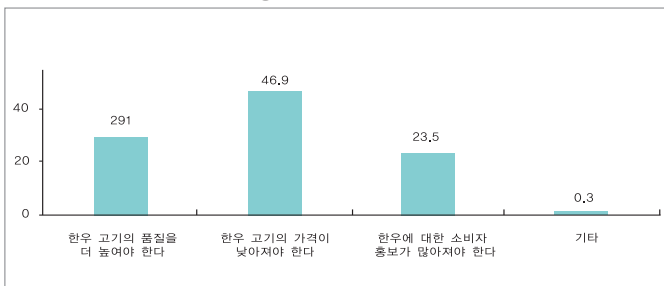
식점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거의 대부분(86.2%)의 음식점이 향후 한우 판매에 좀 더 주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판매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한우 고기의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응답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한우 고기의 품질을 더 높여야 한다'(29.1%), '한우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많아져야 한다'(23.5%)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3. 한우 고기 구입 가격에 대한 생각 (단위 : %, 사례수 : n=4,240)



※ 모름/무응답 제외

표4. 한우 판매를 높이기 위한 방법



※ 모름/무응답 제외



한우자조금 광고 1원당 14.1원 수익효과 창출



2005년도 한우자조금이 시작된 이후 한우자조금의 광고가 1원당 14.1원가량의 수익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이 축산경제연구원 연구 용역한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우농가가 거출한 자조금에서 지출한 경제적(광고)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우자조금이 도입돼 광고를 시작한 2005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1개월 동안 약 382억7,4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월평균 241t의 추가 수요를 얻었다고 추정했다.

2010년 한우자조금 사업부문별 자금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금액 253억4800만원 가운데 93억2500만원은 소비홍보비로 지출됐고 50억9900만원은 교육 및 정보제공비로 사용됐다.

한우자조금 평균 투자이익률은 사업 첫 2년(19개월) 동안 광고비 82억원 지출에 65t 추가 수요를 발생시켜 5.37원, 35개월에는 광고비 168억원에 247t 추가 수요로 16.96원, 47개월에는 광고비 248억원에 175t

추가 수요로 10.48원, 59개월에는 광고비 319억원에 123t 추가 수요로 3.59원 등으로 해마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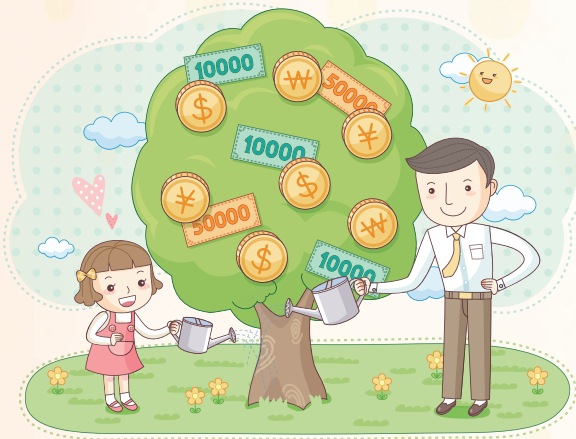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한우농가의 인식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조금 활동에 대한 지지는 적극지지 45.5%와 지지 34.6%로 긍정적인 답변이 80.1%에 달했고 한우자조금운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6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우자조금 사업이 소비촉진활동과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된다면서 한우고기 유통 부조리 근절, 인기 부위와 저지방 부위 가격차이 확대, 자조금 사업 합리성 극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축종별 자조금 사업 연대, 생산비 절감 전략 교육 강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방법 개발, 계열화된 축산업 발전 모색, 사료값 안정과 조 사료 생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태 장려금 신청현황

10만두 중 8만8천두 접수마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을 발표해 두당 30~50만원의 감축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신청이 마감된 지금 접수 결과를 알아본다.



암소도태장려금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기준 한우암소 도태사업 신청 접수 결과 전체 도태대상 10만두 가운데 8만8천두 정도가 접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청실적은 당초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미루어 3월 중으로 마감되는 암소도태장려금 신청은 우려했던 것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마감될 전망이다.

한우암소도태장려금은 한우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 24개월 미만의 미경산 암소에 대해서는 50만원, 45개월령 미만 암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도축시점기준 최소 농장 내에서 10개월 이상 사육된 암소에 대해서만 도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한 중간 유통업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농가 인터뷰

도태장려금 홍보와 안내가 아쉽다!



▲변경현(강원 홍천)

홍천축협에 문의해 사육 중이던 암소 7마리에 대해 암소도태장려금을 신청했다. 산지 송아지 값은 물론이고 경락가격이 모두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높아진 사료 값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번 기회에 암소를 일부 도태시키자는 생각에 신청하게 됐다.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청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은 농가들의 상황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홍보가 부족한것이 아쉽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농가들에게 사업에 대해 홍보와 안내가 더 세세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도 농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것 같다.

한우 암소비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우 암소비육 사전지식

비육을 결정할 암소의 최적 나이는 4세 전후로 등급하락의 우려가 적음

- ▶ 경산우의 나이가 많을수록 성숙도에 의한 등급하락 요인 증가 (5세 이후)
- ▶ 2산 4세 무렵 비육 개시하여, 8개월 비육 후 5세 이하 출하 시 가장 좋은 육질성적을 보임
- ▶ 3산 6세 이후 비육 시 등급이 하락하는 비율이 증가하므로 이를 감안 하여 비육해야 함
연령별 출하시기에 따른 성숙도 증가에 의한 등급 강등 비율
- 5세 : 20% 내외 - 6세 : 50% 내외 - 7세 : 90% 이상
- ▶ 근내지방도 점수에 의한 1차 등급판정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하락
(예 : 1차 등급판정이 1++ → 1등급, 1+ → 1등급으로 최종 등급판정)

한우 미경산우 비육방법

한우 미경산 암소 비육우의 발생 스트레스 경감 요구기간

- ▶ 11~22개월령(12개월간)전후 발생 스트레스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로 주의 깊은 사양관리 필요

한우 미경산우 비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단계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생후월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표체중		150	168	186	204	222	240	261	282	303	324	345	366	390	414	438	462	486	507	528	546	564	582	600	618	633					
일당중체량(kg)			0.6	0.6	0.6	0.6	0.6	0.7	0.7	0.7	0.7	0.7	0.7	0.8	0.8	0.8	0.8	0.7	0.7	0.6	0.6	0.6	0.6	0.6	0.6	0.5					
배합사료	급여비율 (제중비, %)	1.6										1.7						8.5kg 제한													
	영양수준	CP 15%, TDN 69%										CP 12%, TDN 72%						CP 12%, TDN 73%													
	급여량(kg)	2.3	2.8	3.1	3.4	3.8	4.1	4.5	4.9	5.3	5.7	6.0	6.4	6.9	7.4	7.8	8.2	8.5	8.5	8.5	8.5	8.5	8.5	8.5	8.5	8.5					
조사료	건초	2.0	2.0	2.5	2.5	3.0	3.5	4.0	4.0	4.0	2.0	1.5	1.0																		
	볏짚													2.0	2.1	2.2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한우 미경산 암소 적정 비육기간

- ▶ 생후 30개월 : 근내지방도 5.1,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86%로 육량지수 저하 ▶ 소득 : 1,557천원/두

한우 경산우 비육방법

비육기간은 개시체중에 따라 결정

- ▶ 체중 450kg미만 : 8~10개월, 450kg이상 : 6~8개월 비육
- ▶ 소득 383~578천원 증대 효과

경산우 비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단계		적용기				출하시기 결정		개체별 적용(개시체중 450kg기준)			
비육월령		1	2	3	4	5	6	7	8	9	10
450kg 미만	목표체중	400.0	439.0	475.0	503.2	530.2	553.0	568.0	587.5	601.0	612.0
	일당중체량	1.30	1.20	0.94	0.90	0.76	0.50	0.65	0.45	0.14	0.31
450kg 이상	목표체중	500.0	536.0	566.0	591.2	614.0	634.4	647.9	656.9	-	-
	일당중체량	1.20	1.00	0.84	0.76	0.68	0.45	0.30	0.10	-	-
배합사료		5~6	8	8	8	8	8	8	8	8~10	8~10
		*자유채식(출하전 2개월 개체만 적용)									
볏짚		4	4	2	2	2	2	2	2	2	2
비고		조음파 육질 측정 기준(지방도 5.1 이상 또는 20일 이상) *조음파 육질 측정 기준(지방도 5.1 이상 또는 20일 이상) 조음파 30일 개시체중 400kg 조음파 30일 개시체중 450kg									

사료급여 요령은 비육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거세우 비육후기와 마무리 사료 급여

- ▶ 비육전기(4개월) : 농후사료 체중의 1.7% 제한급여 ▶ 비육후기(4개월) : 농후사료 자유급여

출하시기는 4개월간 비육 후 초음파 육질 진단을 통하여 결정

- ▶ 근내지방도 1, 2 : 사육할수록 소득 감소 → 즉시 출하
- ▶ 근내지방도 3 이상 : 4~6개월 이상 비육 후 출하

15일 0시 한미 FTA 발효… 줄속 강행 정부 비판 각 도별 기자회견, 항의방문 잇따라

한·미FTA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지 약 6년만에 시행된 것이다. FTA발효로 양국 교역품의 85%가 즉시 관세 철폐되며 단계별, 계절별로 관세가 사라진다. 한우협회를 비롯 각 농민, 시민단체는 한·미FTA는 불균형 협상으로 정부가 줄속적으로 강행처리했음을 토로하고 총선 및 대선을 통해 한·미FTA를 폐기를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5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지난 13~15일에 걸쳐 전국적인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진행했다. 한우협회 각 도지회 및 시군지부는 지역 내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반대집회를 갖고 한·미FTA 무효화에 전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중앙회



한우협회 중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청운호자동사무소에서 열린 농민단체 기자회견에 동참해 한·미FTA무효화에 전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호영 한우협회장과 임관빈 부회장은 조준호 통합진보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우산업의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



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및 농민단체 회원 2백여명은 지난 14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



한우협회 충북도지회는 지난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원



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14일 강원도청앞에서 시·군지부장과 농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축산과를 항의 방문해 FTA에 따른 축산업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남



충남은 지난 13일 서천지역에서 한우협회 회원과 농민단체가 서천군청 앞에서 FTA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14일에는 부여와 예산에서 5백여명이 예산역광장에 집결해 공동기자회견 진행 후 군청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경북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경북지역농축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3,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발효 및 한중FTA 추진 반대 쫓겨나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쫓겨나기대회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집결해 1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으로 농협경북지역본부까지 이동했다.

전북



지난 14일 전주 코아호텔 앞 시내에서 한우협회 전북도지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회원 1천여명이 집결해 농민대회를 가져 '한미FTA폐기와 농자재 반값공급'을 요구한 후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전남



전남은 지난 15일 광주역에서 협회 회원 및 농민단체 1백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새누리당 전남도당까지 시가행진을 펼쳤다. 한편 전남은 지난 2일 전남도청 앞에서 3천여명의 농민이 집결해 한미FTA반대 농민대회를 가졌다.

경남



경남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앞에서 8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 후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 4월 16일 확정

지난 20일 관리위원회 개최...
한우자조금 품목별 대표조직 선정



【표1】 관리위원장 선출 일정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가 내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대전에서 개최되어 2011년 한우자조금 결산 및 관리위원장 선거일을 결정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출의 경우 구법에는 관리위원장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축산자조금법이 변경되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항목에 의거해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선출토록 규정되었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를 확정했고, 7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성한 대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선거규정에 따라 【표1】과 같이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표1】에 따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는 오는 16일 대의원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선출직 관리위원이었던 정호영 대의원이 한우협회장에 당선되어 당연직 관리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남에서는 궐위 관리위원 1인을 선출하도록 확정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2012년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육성사업비 중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용도를 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한우자조금 사업 위탁 운용 규정(안)이 확정되어 기존 자조금사업 운영의 주체가 축산단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으로써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한우소식 이모저모

한우사업단 우수조직 10곳 선정

농식품부 “축산 선진화 위한 조직 활성화”

한우농가를 조직화시킨 한우사업단이 당초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이 주도하는 지역단위 한우농가 조직체인 한우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및 방역 등을 위한 기초사업을 수행하고,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을 유도하여 참여의욕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주요 기능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한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벌인 10곳 한우사업단을 선정하고, 자금도 지원했다.

2011년 한우사업단 지원 대상에 따르면 ▲완주군한우사업단(전주김제완주축협) 5억원 무이자 ▲전북정읍단풍미인한우사업단(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 5억원 무이자 ▲평창군한우사업단(평창영월정선축협) 5억원 무이자 ▲영암군한우사업단(영암축협) 5억원 1% ▲홍성군한우사업단(홍성축협) 5억원 1% ▲양평군한우사업단(양평축협) 5억원 2% ▲충주시한우사업단(충주축협) 5억원 2% ▲영주시한우사업단(영주축협) 5억원 2% ▲거창군한우사업단(거창축협) 5억원 3% ▲달성군한우사업단(달성축협) 5억원 3%이다.

[축산신문 3월 14일]

음식점 고기 가격 100g당 가격으로 의무 표기

앞으로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이 표시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유통신문 3월 14일]

애독자 코너

농촌진흥청에서는 한우암소비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산우에 적절한 비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한 마리당 최대 57만 8천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최근 저능력 암소도 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비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한우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경산우 비육 시 체중이 450kg 미만인 소는 8~10개월, 450kg 이상인 소는 6~8개월 정도 비육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비육을 결정할 암소의 최적 나이는 ?세 전후로서 등급하락의 우려가 적다고 농진청에서 밝혔습니다. 과연 **비육을 결정하는 암소의 최적 나이는 몇세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엽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엽서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3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당첨자

2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정성(전남 무안군), 조주동(경북 안동시), 박종문(충북 청원군), 김미자(강원 홍천군), 류향옥(경북 경주시), 김영보(충남 태안군)

인증점 소개

문수산성

전화 : 031-997-2337
주소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240

문수산으로 오르는 길 입구, 능선 위에 그림 같은 하얀 집이 눈이 들어온다. 앞으로는 고막저수지가 있고, 뒤로는 문수산이 배경으로 한 한우판매인증점



문수산성이다. 김포지역의 한우농가가 즐겨 찾는 이곳은 한우고기 맛이 일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가격 또한 정육점 판매가격으로 책정해 저렴하며, 상에 오르는 모든 야채는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다. 식당 주변에는 텃밭을 비롯해 바비큐장, 어린이 놀이터와 족구장을 마련해 가족 단위는 물론 직장 야유회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02-01108

비매품 제8권 제27호 통권 제77호 발행일 2012년 3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예방으로 조기 청정화를 이룹시다

주기적인 농장 소독과 철저한 차단 방역, 예방접종 실시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

축산농가 방역수칙



구제역 발생한 나라 여행 자제

- 축산농가·가족 및 축산관련 종사자는 입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후 입국시 소독 실시
- 입국시 미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 신고 : <http://www.qia.go.kr> 전화 : 1588-9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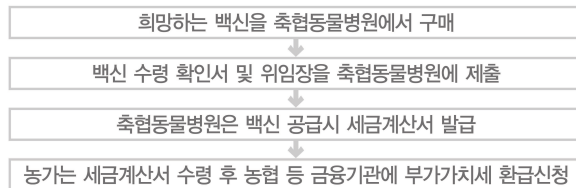
농장 소독 및 차단 방역

- 매주 수요일, 농장 소독 실시
- 외부인, 출입차량의 출입통제와 소독 실시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시·군에 신고

백신 접종

1. 구입 방법

• 50두 이상 전업농가



• 50두 이하 소규모농가

시·군에서 조달구매 및 무상공급

2. 접종 요령



• 1두 1침 사용준수

• 백신은 2~8°C 냉장 보관

* 주의사항 : 사용 전 백신을 가볍게 흔들어도 백신의 층이 분리된 경우 또는 알맹이가 보이는 경우 사용 금지 (얼렸다 풀린 경우에 해당됨)

• 백신 개봉 후 36시간 이내 접종

• 주사시 요령

- 사용시 상온에 2~3시간 놔둔 후 백신온도가 20~25°C에서 주사 실시
- 백신 사용 전 백신 병을 2~3회 반복하여 부드럽게 위·아래로 뒤집어 섞음
- 주사시 약물이 완전히 주입되도록 3~5초로 천천히 주사

3. 2012년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 * 접종량(1회) : 2ml/마리

4. 구제역 항체 양성을 미흡농가 불이익

-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 또는 항체가 미달(소 80%) 농장에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농장당 16두 검사
- 소규모 농가 전두수 검사

매매·도축 출하시 참고하세요

-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휴대 간소화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폐지
-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도축출하 예정우는 백신 최종 접종 후 6~7개월 이내 출하시 백신접종 안함